4 자유연제 IV

화상환자 의료사회복지서비스 Critical Pathway 개발 및 적용

한림대의료원 한강성심병원 사회사업팀

이미영 · 김시내 · 백정연 · 황세희 · 김준영 · 최경애

(배경) 화상은 질병의 특성상 환자들이 병원에 장기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고, 화상 환자들은 화상 상처의 치료 후에도 구축, 비후성 반흔, 소양증 등과 같은 후유증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문제, 경제적 문제,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를 경험하게 된다. 의료사회복지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위기에 처한 화상환자들이 처음 입원해서 질병에 적응하고,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 환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이에 본 사회사업팀에서는 치료단계별 사회복지서비스 critical pathway 개발을 통해 화상 환자들에게 조기개입 및 시의적절한 개입을 하고 의료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. **(방법)** 한림대의료원 한강성심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으로 일평균 200명의 화상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. 이중 중환자실을 통해 입원하는 TBSA 20% 이상의 환자(일평균 30명)에 대해서는 routine consult로 사회사업팀에서 개입하고 있으며, 일반병실 환자의 경우, 주치의의 의뢰나 환자 및 보호자의 자발적 방문, 지역사회를 통한 의뢰로 개입하고 있다. 2006년에 화상환자 의료사회복지서비스 Critical Pathway를 개발하였으며,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사회복지사가 개입한 모든 화상환자에게 CP 적용 후 데이터를 2006년, 2007년 사회복지과 업무실적, EMR 분석을 통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. **(결과)** 화상환자 Critical Pathway 적용 후 심리사회적 문제 상담 건수가 2006년 448건(총 화상환자 개입 수 540명, 82.96%)에서 2007년 627건(총 화상환자 개입 수 490명, 128.0%)으로 45.04% 증가하였으며, 미성취율 또한 2006년 5.76%에서 2007년 3.02%로 2.74% 감소하였다. 수가처방율의 경우도 2006년 437건(총 개입환자 540명, 80.93%)이었던 것이 2007년 478건(총 개입환자 490명, 97.55%)으로 16.62% 증가하였다. **(결론)** 화상환자 의료사회복지서비스 critical pathway 개발 및 적용을 통하여 심리사회적 문제 상담 건수 증가, 미성취율 감소, 수가처방 누락율 감소의 결과가 나타나 화상환자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따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화상환자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표준으로 제시하는 바이다. 아울러 화상 적용 사례를 확대하여 다른 질환에 대한 의료사회복지서비스 critical pathway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.